

절망속에서 희망이 움튼다

지난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는 초속 30~40m의 강풍을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으며 제주를 강타했다.

'나리'는 1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1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내는 등 제주에 사상 최고의 피해를 가져온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도내 사회복지시설들도 수마를 피하지 못했다.

월대천이 범람하면서 건물 대부분이 물에 잠겨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제주보육원.

컴퓨터와 팩시밀리 등 사무실 기기는 물론 텔레비전과 에어컨 등 각종 전자기기가 침수됐을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교과서와 가방, 신발 등도 모두 떠내려갔다. 의류창고가 물에 잠겨 원생들은 한동안 같은 옷만을 입고 생활해야 했다. 피해액은 1억원을 훌쩍 넘겼다.

이 소식을 접한 공무원과 외도초등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60여명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걸음에 달려와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제주항공 직원들이 월대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보육원을 찾아 젖은 옷들을 세탁하고 있다.

태풍 최대 피해 시설에 자원봉사 온정 이어져 수해 입은 시설 직원이 복구현장서 '구슬땀'

며칠간 등교하지 못했던 원생들도 고사리 손을 모아 복구에 나섰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부인 리사 버시바우 여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아

동복지후원회 등 각계에서 금품을 전달하며 아이들을 위로했다.

제주보육원 황의두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으면 업무도 못 뉘었는데 많은 분

들이 도움을 줘서 신속히 복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태풍 피해를 입었으나 더 큰 피해를 당한 곳에 자원봉사를 나가 비지땀을 흘린 사회복지시설도 있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은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고 2층 생활인 방들이 물바다가 되는 수해를 당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한천교 주변 침수가옥에서 토사와 오물을 제거하는 등 수해 복구작업을 벌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금자 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도움을 받는 곳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직원들도 흔쾌히 응해 봉사활동에 나섰으며, 성금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에 태풍 '나리'가 휩쓸고 간 상흔은 여전하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이 있기에 내일의 희망이 움튼다고 있다.

"나눔은 투자입니다
행복 주주가 되어주세요!"

'희망 2008 나눔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나눔은 투자입니다. 행복 주주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 2008 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캠페인 기간 12억원을 목표로 방송사와 신문사, 사랑의 계좌, ARS 060-700-1212, 사랑의 열매 모금함 등을 통해 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출범식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다.

출범식이 끝난 후 도내 주요 거리 20곳에서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사랑의 열매' 가두 보급에 나선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산
시설 탐방성이사토요양원
- 사회복지소식 4·5면
행복한문화나들이·소식마당
특수교육지도사과정·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독자의소리
- 특집 7면
인권과사회복지

"기초노령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최고 8만3640원 지급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제주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부부 64만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8만3640원까지 지급되며,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된다. 예상 신청자수는 2만 1649명(제주시 2만 5567명, 서귀포시 7248명)이다.

제주도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통·반·리별로 접수일자를 달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신청·접수 담당인력 88명과 업무지원 인

력 86명을 읍·면·동에 배치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추진 상황반을 도와 행정사에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2008년 295억원(국비 207억원, 지방비 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춘강 정신의 시작입니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는 제주도내 유일의 장애인근로작업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어린 기술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당당한 지역사회 일꾼으로 자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친환경용지, 칠보공예품, 갈옷, 생활한복, 갈천침구류



사회복지법인 춘강

www.choonkang.or.kr Tel. 064-702-7851 Fax. 064-702-6111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 정산

국가복지정보시스템-서울행정시스템 연계 자원봉사관리도 통합... “정보화 기반 구축”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기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보조금 정산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시스템인 서울행정시스템의 온라인 정보를 오는 5일까지 연계해 내년부터 주요 업무를 전산화한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은 물론 보조금 정산, 생활인 현황, 인사현황, 예·결산, 입·퇴소 현황 신청

등 시설의 57개 항목을 온라인을 통해 행정기관에 보고하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자원봉사관리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의 자원봉사관리의 이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시스템을 연계시켜 시설 담당자가 동일한 업무를 두 번 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없앤다.

또 시설정보와 회계정보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평가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시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보험료 청구를 위한 연계시스템도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실무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노년은 아름답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노인일자리박람회가 10월 19일 제주시종합경기장 유도화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람회에 참가한 노인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호응’

492건 수리서비스...수리비 20~100% 지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수리센터를 이용한 실적은 492건에 달했다.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에 필수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7종의 부속품 교체 등 수리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특히 태풍 ‘나리’로 인해 침

수되거나 파손된 15건(250만원 상당)의 보장구는 무상으로 수리해 줘 피해 복구에 한 몫을 담당했다.

제주도가 지난 2003년부터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고관철)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대상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수리비의 20~100%를 지원해주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수리부분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한편 작업공간을 확대하는 등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젠 ‘지적장애’로 불러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10월 12일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 명칭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

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도내 지적장애 관련 시설이나 단체의 명칭이 바뀐다.

지적장애인은 지적인 능력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가질 뿐 재활교육과 자립훈련, 사회적 지원만 있으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진 이들이다.

2007 사회복지세미나 9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9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서 ‘2007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전혜연 연구원의 ‘사회지표 개발과 조사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전문위원회가 연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표조사’에 대한 결과를 연구원별로 발표한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련 학과 교수,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자도에 무료노인요양시설 개원

도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자면에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추자요양원이 10월 12일 문을 열었다.

추자요양원은 연면적 1078㎡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돼 물리치료실과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거실 등을 갖췄다.

이 곳에는 사회복지사를 비

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등이 배치돼 노인들을 돌보게 된다. 정원은 50명.

추자요양원 개원으로 중증노인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시각장애인 잔치한마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는 10월 18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제31회 시각장애인잔치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정국(42·시각장애 2급)·지성인(62)·이금자(여·34)씨 등에게 복지유공자 표창이 수여됐고, 민속공연과 척사놀이, 장기자랑 등이 이어져 참석자들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현 명 관



시선 앞방

(1)성이시돌요양원

“어르신들의 보통의 삶을 위하여..”

현재 제주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등 200곳에 가까운 사회복지시설들이 산재해 있다.

본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첫 순서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성이시돌요양원(원장 한승광 수녀)을 찾았다.



수급자 대상 무료 운영...“노인들에 희망 선물”

한라산 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를 잡은 성이시돌요양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는 현재 노인 75명이 건강상태에 따라 4개동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특히 치매가 심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환자동은 24시간 생활지도사들이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한 원장은 요양원 운영방침에 대해 “현대 사회의 필연적인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존재이기에 세상 풍파를 헤치고 살아 오신 어르신들의 나머지 삶이 지루하지 않고 인간답게 보통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1981년 P.J. 맥그린치 신부가 요양원 문을 연 이후 26년 동안 변화를 싫어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 요양원에서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활, 정서지지, 창의력 훈련, 소그룹 활동, 사회통합 및 나들이 프로그램 등 노인들에게 활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실시한 요양원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표현력 강화를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자기 적성에 적합한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래야만이 사람과 사람을 다루는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존재감과 함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조언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래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그 길에 저희들 또한 힘을 쏟겠습니다.”

문의=064)796-0037

〈이명자명예기자〉

제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출범

제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10월 16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지체, 시각, 청각·언어, 신장,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장애인 5개 단체 지회장이 임원으로 구성됐다. 초대 회장에는 이금희씨가 추대됐다.

협의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들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확

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금희 초대 협의회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통합해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유형별 장애인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寄稿 기고

사회서비스사업에 바우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지금까지 복지 서비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지원돼 온 고정관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사회혁신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선택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공급자 주도방식과는 다르다. 또 잠재수요가 큰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 사회서비스 초기 시장 형성 촉진제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앙정부에서 보급하는 2개 사업과 자체 개발한 3개 사업을 선정해 시행 중이다.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보면 아동독서지도 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중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1:1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을 월 4회 방문 제공하며, 바우처 지원은 월 3만원, 본인부담은 9000~1만3000원이다.

아동건강(비만)관리 서비스는 비만정도가 20% 이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영양·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바우처 지원은 월 4만원, 본인 부담 1만원에서 4만9000원이다.

취약계층 친환경방제 서비스는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천식·아토피·파부질환 예방을 위한 집안 내외 미세해충·집먼지 진드기 방제소독 서비스로 분기에 1회 제공한다. 바우처 지원은 월 10만원, 본인 부담 1만원이다.

복지사각지대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19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그룹 및 틈새교실을 운영하는 교육 사업으로 주 2회 2시간을 제공한다. 바우처 지원은 월 18만원이며 본인 부담은 2만원이다.

장애가구 주니어 웰빙클라닉센터 운영 서비스는 장애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사회성 발달 클리닉을 통한 여가 및 취미활동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 3회 6시간을 제공한다. 바우처 지원은 월 20만원이며 본인 부담금 1만~4만원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 촉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등 사회 투자형 서비스를 집중 개발해 바우처 지원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강애란〉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을 축하드리며 차별없고 가족행복의 복지사회에 앞장서길...

미래를 창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가출 청소년 인식 개선 상담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박한샘)는 10월 13일 제주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 청소년쉼터, 성지정소년쉼터와 함께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합동거리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거리상담에서는 가출관련 설문조사와 함께 MBTI 성격유형검사, 홀랜드진로탐색검사, 한국형인터넷자가진단척도의 심리검사가 무료로 진행됐다.

또 매직풍선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생리주기팔찌만들기 등 이벤트행사도 다양하게 열렸다.

한화리조트와 함께 흥익체육대회

사회복지법인 흥익원은 10월 20일 제주한화리조트 직원들과 함께 흥익보육센터 잔디마당에서 흥익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원생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은 원통굴리기 등 풍성하고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왔어요”

저소득 가정·보육원 아동 ‘문화나들이’

도내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과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SK에너지(주)의 후원을 받아 대정초등학교 등 서귀포시 읍지역 초등학교 4~6년생 27명과 흥익아동복지센터 등 보육시설 아동 52명 등을 대상으로 ‘행복한 문화나들이’ 사업을 실시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10월 25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이뤄진 문화나들이를 통해 ‘천년고도’ 경주 등지에서 역사 유적지와 문화시설 등을 둘러보며 원대한 꿈을 키웠다.

문화나들이 첫날에는 이 사업을 후원한 SK에너지(주)를 방문, 견학한 뒤 SK에 근무하고 있는 제주 출신 선배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가진 후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N서울타워와 조선왕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경복궁 등을 관람했다.

이틀째인 26일에는 에버랜드를 찾아 초식동물과 맹수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복합사파리인 ‘사파리 월드’ 등을 구경하며 천진스런 동심의 나라를 펼쳤다. 오후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과학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인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에너지의 역사와 절약방법, 신기술, 대체에너지 개발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람할 수 있



는 에너지관 등을 둘러보는 색다른 경험을 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문화나들이 사흘째에는 경주로 이동해 국보 31호인 첨성대와 천마총, 계림, 석빙고, 불국사 등 신라의 유적지 등을 돌아봤다.

한 어린이는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곳을 직접 가서 문화재를 구경하며 알지 못했던 뜻이나 의미 등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밝게 웃었다.

〈현경애 명예기자〉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8·9월 식품 기탁자

1688@1377 FOOD BANK

- ▲ SMC던킨도너츠=도넛 1만 6945개
- ▲ 명당양과(신제주)=빵 800개
- ▲ 제주물류빵집(품과도르)=빵 800개
- ▲ 바로밤베이커리=빵 800개
- ▲ 제주만속떡집=냉동떡 90kg
- ▲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40kg
- ▲ (주)서천문축산=육류 300kg
- ▲ (주)천지축산=갈비 300kg
- ▲ (주)신세계이마트=통조림류 77상자
- ▲ 산방미곡=쌀 100kg
- ▲ CJ(주)=기타 양념류 79상자
- ▲ 롯데제과=과자류 18상자
- ▲ 롯데칠성=음료 265상자
- ▲ (주)오뚜기=부식류 83상자
- ▲ (주)대상=기타 양념류 214개

소/식/마/당

인효원 작은음악회 개최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보은의집·실버하우스는 10월 8일 보은의집 강당에서 입소자 어르신과 보호자와 지역주민인 오라정실 경로당 어르신 등을 모시고 지역주민 통합프로그램인 ‘나눔사랑-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제주경찰악대와 돌체우먼코러스, 가수 양정원, 세인어린이집 원생들이 참여했다.

무연분묘 무주고혼 위령 천도재 봉행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10월 6일 충훈묘지 주차장에서 김영훈 제주시장과 한나라당 제주도당 현명관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선이 없어 성묘와 제사를 못 지내는 무연분묘 6만 여기를 대상으로 무연분묘 무주고혼 위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천도재는 제주 불교의식 지방문화재 제15호인 반야사 주지 성천 스님과 범음법패연구회원 스님들의 진행으로 치러졌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희망음악회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아라주공관리사무소와 함께 10월 23일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희망음악회’를 열었다.

제주방어사령부(준장 최승길)의 지원으로 함께 한 이날 음악회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다양한 음악에 맞춰 지역주민 150여명이 모두가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부모 정보통신 윤리교육



제주영송학교(교장 김영욱)는 10월 5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송학교 다목적실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 건강한 인터넷’이란 주제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인터넷 댓글 문화와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부모 역할 ▲부모와 자녀간 인터넷을 통한 이해방법 ▲유행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 부모들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주양로원·제주요양원 가을나들이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은 10월 4일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외도1동 경로당 어르신을 모시고 천지연폭포 등을 둘러보는 가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2000년 이후 가을나들이를 후원하고 있다.

장애인 원예치료 활성화 워크숍



제주애덕의집(원장 이대원)은 10월 13일 제주애덕의집 다목적실에서 원예치료평생교육원 및 각 시설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원예치료 접근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든 작품 50여 점도 전시됐다.

2007 유진 가족사랑 캠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인 유진재활센터(원장 최은미)는 10월 27~28일 제주휘트니스타운에서 ‘2007년 유진 가족사랑 캠프’ 개최했다.

제장복, 흥사단 투명상 수상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7 흥사단 투명상’ 사회복지 부문에 선정됐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정회계가 투명하고, 경영이 공개되며 지역사회봉사자여도가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흥사단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 ‘흥사단 투명상’을 제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제주아동센터協 윤리강령 선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는 10월 13일 제주한화리조트에서 도내 35개 회원기관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대회를 갖고 아동복지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 선언했다.

윤리강령은 아동을 차별하지 않을 것과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폭력 등 일체의 학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담고 있다.

마라톤으로 장애인 벽 허문다

가롤로의 집 생활자들은 2005년 1월부터 주 1회 제주시종합경기장에서 남양택시 봉사단체 ‘혼팻’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마라톤 훈련을 하며 지역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벽을 허물고 있다.

이들은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혼팻’ 회원들은 가롤로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특수아동지도사 교육과정 ‘호응’

치료 중심 강의 중점 “전문적 심화과정 절실”

특수교육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전혀 없어 치료 기관 및 치료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제주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특수아동지도사 교육과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언어, 심리 및 특수조기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이 14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치료기관은 장애인복지관 등 5곳, 치료기관의 아동 수용능력도 290명에 불과해 장애아동의 80% 가량은 조기에 특수교육을 받지 못해 2~3년씩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한라대학 부설 제주복지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탁을 받아 장애아동 부모에게 치료교육 등의 이론적·실천적 지식을 전수, 이들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과정을 개설했다.



▲특수아상담 ▲특수아동교육 ▲장애인복지론 ▲치료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이 과정에서는 이론을 병행한 치료 중심의 강의를 이뤄져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수강생 118명 중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정 수강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정도가 ‘교육과정이 좋다’고 답했으며, ‘향후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미애

씨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하면서도 이 방법이 긍정적인지, 발전적인지 항상 고민을 한다”며 “교육이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각 장애유형에 따른 치료방법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심화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비 80%는 제주도가 지원했으며,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협회의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등이 주어진다. <조순옥 명예기자>

孝 공모전 대상에 ‘할머니와 마늘밭’

제주특별자치도노인학대 예방센터(소장 김선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孝) 공모전’에서 강병현 어린이(새서귀교 2년)의 ‘할머니와 마늘밭’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인 최우수상에는 이지수 어린이(대정교 2년)의 ‘일요일이 없는 엄마’와 김명준 어린이(광양교 6년)의 ‘삼이와 손이’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이지은양(제주중앙여고 2년)의 ‘외할머니 신세타령’과 변세희양(여·19)의 ‘단란한 가족’이 선정됐다.

고민성 어린이(광양교 6년), 강단비양(제주중앙여고 2년), 오민석(서귀교 2년)·김강택(〃)·김홍석(〃)군의 작품은 입선에 뽑혔다.

이번 ‘효 공모전’에는 16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학대예방센터 소식지와 각종 간행물에 게재된다.



제주은행 전 임직원 자원봉사자카드’ 신청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립)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카드’를 신청했다.

제주은행은 ‘자원봉사자카드’ 신청을 계기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방안을 모색,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강생보호공단 제주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시농협, (주)대성정보기술, 대림산업(주) 제주와함방파제 현장 모든 임직원이 ‘제주자원봉사자카드’를 신청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은 일일나들이

주사랑요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의 도움을 얻어 10월 12일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 39명을 모시고 가을 일일여행을 다녀왔다.

국내여행안내사협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1곳을 선정, 일일여행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승마 프로그램

유진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매주 월요일 제주시 해안동 재활승마봉사대 승마장에서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알/림/마/당

■ 제주케어하우스 자원봉사자 모집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제주케어하우스는 노인들의 외출을 도와주고 음악·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모집중이다.

문의=064)702-9423

■ 제2회 사랑을 심다 전시회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는 1일부터 6일까지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 내 전시실에서 ‘제2회 사랑을 심다’ 도예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배움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도예 체험학교에 참가한 장애인들의 도자기 화분 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 제주도사회복지사대회 13일 한라대학서

제5회 제주도사회복지사대회가 오는 13일 제주한라대학 아트홀 소극장에서 사회복지사와 예비사회복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험회 주최로 열린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명목 사회복지와 인권연구소장의 특강과 사회복지사 노래경연 등이 마련됐다.

■ 3~4일 장애인인권영화제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는 오는 3~4일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제8회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다룬 ‘My sweet neverland’를 비롯해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농아인의 생활백서’, 애니메이션 ‘경찰 오토바이가 오지 않던 날’ 등 1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문의=064)757-9987

■ 제주국제명상센터 워크숍

제주국제명상센터(이사장 박태수)는 오는 3일 한라수목원 입구 ‘숲속의 요가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숲속의 요가원 고은애 원장의 ‘요가의 실제’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진다.

문의=064)753-2313

■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용언)은 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인 주니어 웰빙 클리닉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10월 8일부터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명이 장애를 갖고 있는 비장애 아동과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064)722-9990

어르신·어린이가 함께하는 문화체험

평안주간보호센터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노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운영했다.

▲보치아교육 및 게임 ▲천연염색체험 ▲도자기체험 ▲제주 민속 먹거리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에게는 남은 삶을 행복하고 활기차게 영위하며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어린이에게는 핵가족문화에서 배우지 못한 더불어 나누는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복지 실천에서의 사례관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제주지회(지회장 양창성)는 10월 19~20일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방임아동·위기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세대-지역사회 네트워크 키움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실천에서의 사례관리 적용’ 교육을 열었다.

교육에서는 제주한라대학 홍연숙 교수가 ‘아동청소년의 이해’의 주제발표를 통해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복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산1대학 김상근 교수가 학교사회복지 실천이론, 사례

관리 기법 및 사례관리 과정, 사례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천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실무자, 학교사회사업 실천가,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인의날 행사 나들이

제광원은 제11회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34명을 모시고 제주대학교 학군단의 차량 지원을 받아 악어터문에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Column 칼럼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다



김길웅
수필가·시인

그를 만난 것은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였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그와 마주친 것이다. 스물다섯 해만의 해후였다. 그의 집은 우리와 한 울담이었는데 지금도 그 집에 산다고 했다. 무척 반가웠다. 어렸을 적에 어쩌나 인사를 잘하던지 만나는 족족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그다. 그 날도 예전 그대로 눈을 빛내며 인사를 한다.

점심 많이 먹으라고 등을 다독거리주며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올해 마흔 일곱 살, 결혼도 하고 딸 아들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말은 잘하지만 지능이 낮아 사립판단에 결함이 있는 지적장애인이다. 나이 든 노인네같이 힘없어 보이고 행동거지가 굼뜨다.

그런 그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뤄 한 가정의 가장이 돼 있으니 참으로 대견스러운 일이다.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다. 아, 그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있을까. 과연 가정의 구실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무엇보다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는 그곳 근로센터 복사용지사업부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여느 평범한 근로자와 같아 보인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식욕도 왕성할 것이다. 그의 식판에 동산처럼 높이 퍼 담은 밥이 상징적으로 보인다.

궁금해서 물었다. 한 달에 받는 급료가 얼마나 되느냐고. 즉답을 피하려 했다. 찬찬히 그를 들여다보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말하기가 그래서 라고 했다. 나는 웃음을 머금어가며 다시 물었다. 그제야 속내를 털어놓는다. ‘칠십만 원하고 조금 더...’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무감에 마음이 무거운 게 분명했다. 어떻게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고 부끄러워하는 눈치다.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노력으로 그만큼 급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른 무슨 일을 해서 그만큼 돈을 벌어들

일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설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지 않나 싶다. 그나마 최저임금제를 실천하고 있는 복지법인이 있어 참 잘된 일이다.

그래도 그는 일을 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을 것이다. 일과를 끝내고 현관에 들어서면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웃음으로 맞을 것이다. 그를 감싸주는 집안의 온기. 그래서 그는 오늘도 이곳에 몸을 놓고 있을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온전한 자활자립은 희망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이런저런 잡일을 열심히 한다 하고, 무엇보다 두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 한다. 그 이상의 기쁨이 있을까.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작별하면서 활짝 웃어주었다. 그래도 웃을 줄 모르는 그. 어릴 때처럼 표정이 없다. 어떻게 하면 그를 웃게 할 수 있을까. 당장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에게도 웃을 날이 오리라.

두 아들이 쑥쑥 자라 그 앞에 어른으로 우뚝 설 때, 그는 웃을 것이다.

그 때, 잃어버렸던 한 인간의 웃음을 찾게 되리라. 그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다.

독자의소리

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해

수개월전 지체장애 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로 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KT(한국통신) 정문 앞 맨홀이 보도위에 설치돼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 시설의 이설 및 덮개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보도 등에 설치된 맨홀은 지하에 묻어

놓은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우천시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이동권을 침해하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재 시중에 사용되는 맨홀덮개는 간격이 보통 4~7cm 정도의 규격으로 제작돼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 은 앞바퀴가 빠져 보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앞에 이런 시설물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차도로 내려가는 위험한 보행을 감행하고 있으며,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도 맨홀 구멍 사이에 목발이 끼거나 철재면이 찢어있을시 미끄럼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장애인에게는 별것 아닌 시설물도 큰 장애물로 둔갑하여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민원은 행정시로 해결요청을 의뢰했고 답변인즉 “KT(한국통신)정문 앞 보도의 맨홀은 통신시설의 환기 및 다른시설과의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서 이설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인 관계로 행정적 절차에 의한 민원해결이 어려워 사실상 개선하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통보받았다.

이에 직접 KT측에 이 내용과 관련 보행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맨홀이설 및 덮개의 교체를 부탁했다. 한달 정도 후 민원인과 같이 담당자를 만나다시 한번 부탁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맨홀 덮개는 교체돼 있었다. 담당자로부터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맨홀 덮개를 특수 제작했고, 맨홀이설 문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관청의 “권한 밖이라서 안된다”는 무성의한 답변과 달리 KT측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자기일인양 민원인을 생각하는 담당자의 마음씀씀이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고, 편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혹자는“맨홀덮개 교체가 무슨 대수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을 막상 실행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 장애인편의시설이다.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욱 큰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깊이 배어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은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가 편히 살기 위해 만든 시설 때문에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약자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게는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의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도전의 연속이고 비장애인과 구분되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보다 생활환경속의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따듯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둘러보자. 혹시나 나로 인해 장애를 느끼지는 않는지.

일단 내 집 앞의 문턱을 1cm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해...



오미영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 기술담당

독자의소리

제주도민만의 특별함 만끽하세요

제주도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간 태풍 나리'는 그 위력만큼이나 우리 도민의 큰 저력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나타나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는데 함께 해 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900억톤의 물폭탄에도 당당히 맞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정신, 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수준은 자랑스런 제주인의 모습,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서, 희망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시기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카드' 발급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자원봉사현장에 큰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자원봉사자카드'는 그동안 크게는 중앙행정부처별로, 작게는 행정구역별로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과 그에 따른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제공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주지역에서라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도내에서 자원봉사인력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에서 뜻을 모아 제작하게 되었다.

즉, 통합된 데이터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형평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자원봉사자 카드리고 할 수 있다.

'제주자원봉사카드' 발급사업은 크게 세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그동안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자원봉사인력을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해보험 가입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의 모기업인 SK에너지가 사회공헌활동 차원으로 참여하여 자원봉사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민간사회복지계와 행정기관, 기업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공고히 구축됐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수놓음 복지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또 구호로만 그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는 사례로서 훌륭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자원봉사활동이 몇 몇 남다른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화되고 체질화된 활동으로 인식되어지고 자리잡아야 할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 누구나 자원봉사자카드를 갖고 언제 어디서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보람을 얻음으로써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되는 제주특별자치도민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함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고경윤

■ 국가인권위 진수명 사무관 ‘인권과 사회복지’ 특강

“시설 생활인,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학 교과목에 인권내용이 포함된 과목이 늘어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복지행정 공무원과 사회복지 실천현장 종사자 직무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10월 19일 제주히트니스타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진수명 사무관을 초청, 12개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본지는 진 사무관의 특강 내용을 소개한다.

개인 선택권 · 자율성 제약 최소로 편견 해소위해 인권규정 · 기준 마련

진 사무관은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이 누려야 하는 인권내용은 기본적인 인권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식사와 프로그램 참여 등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에 제약이 따를 수는 있지만 개인의 선택권이나 자율성에 대한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밝힌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을 소개했다.

▲인간적 존엄성 : 인권권과 평등권

진 사무관은 생활인은 구빈(救貧)적·시혜(施惠)적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생활인의 의사표현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설운영에 참여시켜야 하며, 생활인에 대한 호칭은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또 생활인의 의사표현을 무시하거나 지능이 낮다고 연립에 상관없이 어린이이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생존권

생활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입을 옷 등을 선택할 경우에 생활인의 욕구와 자유의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생활인들이 개인 옷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옷을 돌아가면서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생 문제는 물론 질병 등을 옮길 수도 있어 지양해야 한다.

식사와 간식은 생활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제공해야 하며, 생활공간은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와 같은 획일적인 모습보다는 최대한 가정과 비슷한 형태로 꾸며야 한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은 폐지하거나 개·보수해야 할 것이다. 생활인의 고충 처리와 개별 상담을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생활인은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성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여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이 성폭력을 인지하거나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동료라는 이유로 성폭력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유권

생활인에게 최소한의 사생활과 인간적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 물품에 제한을 뒤서는 안된다.

또 생활인 각자의 욕구에 따라 옷이나 머리 스타일, 개인 물품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 기부자에게 생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신 등 알려지면 수치스러운 정보,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정보가

려해 생활인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 학교 교육 등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생활인의 학습능력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며,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권

선거의 의미와 방법 등에 대

성폭력 보호 예방대책 수립 · 시행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 제한 절실

지 공개하는 사례가 있는데, 홈페이지와 생활인 숙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생활인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 시설 운영자의 종교적 신념과 시설 운영은 최대한 분리돼야 하며, 생활인이 종교활동 참석을 거부하는 권리도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입소할 때와 퇴소할 때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생활인이 성(性)을 존중받을 권리도 중요하다.

생활인들을 무성(無性)의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활인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권

생활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원래 가족 구성원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생활인의 연령과 능력을 고

한 교육을 실시해 선거 및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설장과 직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며, 선거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권

같은 연령대의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간과 장소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

외부와의 교류 및 생활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공간을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활인의 문화적 욕구를 존중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접근성을 확보하기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법·절차적 권리

생활인이 시설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돼야 하며, 생활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들의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 시설 서비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 처치가 마련돼야 한다.

■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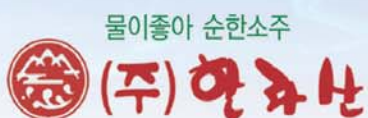
유 형	하위 유형	인 권 보 장(예시)
평등권	차별금지	연령,성,장애 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생존권	의식주 생활	의식주 선택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
	의료 및 건강	의료인 및 의료장비 구비,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
	안전의 권리	화재에 대한 대비 장치 등
	신체·정신적 안전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자유권	자기결정권	원하는 호칭으로 불러질 권리 등
	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의 강요 금지 등
	사생활 보호권	목욕보조시 프라이버시 보호 등
	외부와 소통	지역사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입·퇴소 자유	입·퇴소시 당사자 의지 반영 등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인터넷, 전화 및 통신기구의 사용 보장 등
사회권	가족권	가족과의 자유로운 면회 및 교류의 권리 등
	사회보장권	국가의 생계급여 등 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정보와 관리 등
	교육권	연령 및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등
	노동권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권리 등
정치권	경제권	개인재산 소유 및 관리의 자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등
	투표권	투표 참여 보장 등
문화권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대한 권리	자유로운 여가생활의 보장 및 프로그램 제공, 레크리에이션 활동장소 및 참여 보장 등
	법률상의 도움	인격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법 절차적 권리	시설운영 참여	시설 생활 및 운영에 생활인의 의견 반영 등

청정 제주의 자랑 한라산 소주



SINCE 1950

증류원액으로 블렌딩한 맑고 깨끗한 프리미엄 소주
(약알카리성 청정 지하 암반수)



(주)한라산의 수익금 일부는 제주대학교 발전기금과 제주도체육회 성금,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소년소녀 가장, 난치병어린이, 결식아동과 지역사회 발전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경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